

## [ 오피니언 ]

## 光日春秋

이우영



2007년 정상회담의 약속대로 남북 총리회담이 2박3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임기 말이고 선거 국면이라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이유로 있지만, 8개도 49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2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합의서의 채택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회담 분위기도 좋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총리회담의 진행과정을 볼 때,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한간 다양한 회담은 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은 곧 바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한간의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려가

위원회가 가동되면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였던 기준의 장관급 회담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 되어있으면서도 총리급 회담은 비롯한 전문분야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

2007년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합의사항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

남북한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먼저 남쪽 내에서 각급 회담의 위치관계 정립과 각급 회담 담당 부처 및 회담 간 대상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총리급 회담이 정점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각 회담을 관련 주제별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회담간의 위치 문제 등은 단순히 회담의 정비를 넘어서서 정부내 대북 문제 및 통일문제의 업무분장과도 연결된다는데 사안의 복잡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통일부만이 남북관계 업무를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문제는 재경부, 문화교류는 문화부 그리고 인도적 지원문제는 북부의 전문성이 절실히지면서 통일부의 능력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담의 정비는 곧 정부내 대북문제 및 통일문제의 업무분장의 재고가 필요하게 된다.

정권 교체기에 정부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의 활성화로 비롯된 각급 회담의 증가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회담간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되는 것은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담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되었던 장관급 회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총리회담이 정례화되면서 기존 장관급회담은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회담과 별개로 지속되는지가 불투명하다.

만일 국방장관 회담도 순행하면서 정례화되고, 부총리급이 주도하는 경제관련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리고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회문화협력추진

될 각종 회담의 수준을 혼란스럽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 그리고 총리급 회담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각급 회담에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차원과 격이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최고위급이 결정하여야 하는 북한의 딱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 소통구조의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IMF 10년, 중산층 사라진 광주·전남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외환보유고가 비단나 나라가 부도 위기에 물리자 IMF에 손을 벌린 것이다. 당시 IMF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IMF 극복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금융회사 30%가 문을 닫았고,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사라졌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이 지난 지금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지역경제는 저성장과, 저고용, 저물가 등 '3자 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

문제는 지역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활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투자위축과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률은 8~9%에서 3~5%로 반토막이 났다. 실업자는 지난 96년 2만9천여명에서 4만9천여명으로 2만명 이상이나 늘었다.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서민층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 외환위기 10년을 맞은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현주소다.

요즘 지역경제는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제 2의 IMF 사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년 전의 끔찍한 사태를 다시 맞을 수도 있다.

지역경제가 할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꺼져 버린 성장동력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문제는 지역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활력을 상신했다는 점이다. 투자위축과

## 'BBK 연루 의혹'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신당들은 연일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다. BBK 사건이 대선정국의 핵심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가족은 정치권의 공방에 불을 붙였다. 김씨의 부인은 21일 미국에서 이번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투자자문사인 BBK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후보측은 이번계약서 자체를 부인하며 김씨측이 위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진실게임이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번계약서는 양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김씨의 부인은 이 후보측의 필적 위조 가능성으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3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전국은 요동을 칠 것이 분명하다. 통합신당들은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김경준씨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정치권이 승복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방이 치열한 만큼 수사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몸사리기'와 '정치공작'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정치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협예한 공방에 혼란스럽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

## 無等鼓

세계 최초로 박람회가 열린 곳은 영국이다. 1851년 5월 1일 빅토리아 여왕은 30만장의 유리와 철물로 지어진 런던 하이드 파크의 수경궁에서 런던 박람회 개막을 선포했다.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이 미래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에서 개최한 국제행사였다.

축구장 11개 넓이에 3층 높이의 수정궁에는 기관차와 선박

용엔진, 방적기 등 당시 최첨단 기기 1만3천여점이 출품됐고 입장객 수만 600만명을 넘어섰다. 런던박람회의 대성공에 힘입어 정착된 국제박람회에 우리나라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889년 파리박람회부터다. 출품

한 물품이자 동자와 가마 등 전통공예품에 한정됐으나 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존재를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개최국의 산업과 문화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철학의 기회다.

각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서는 이유기도 하다. 특색있는 박람회를 열어 적잖은 수익을 올리는 도시들도 많다. 독일의 중소 도시 하노버에서는 연간 30회의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미국 리스베이거스는 컴퓨터 관련 박람회인 '컴텍스'로도 박도시라는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2여수엑스포 유치 결정이 5일 앞

으로 다가왔다. 전남도민은 물론 국민

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고 정부나 재계

도 외교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유치활동을 지원해왔다.

여수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1조6천146억 원의 수입과 10조7천 900억원의 생산유발,

1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 역점 사업인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수엑스포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는 27일 새벽

'파리 발 낭보'를 기대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이광운



최근 수도권 소재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가 유출되어 교육을 바라본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는 사례도 있다는데, 대체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이길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으며 그 잘못된 원인을 무엇일까?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재능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고등산업사회

의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대학 입시준비 기관으로 변모한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일 것이다. 또 외고 입시준비 학원들이 잘못 선전하고 부추긴 점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부터 벗어나 정해진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유인하려면 과학과 학교와 같이 외고출신도 2학년 만 이수해도 외국어대나 자기가 전공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넓혀주어야 하고, 외고 졸업생들만 진학할 수 있

## 외고 정상 운영, 입시과열 해소한다

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의 40%이상을 외국어 교과에 치중해야 하며, 전공과를 합침에 제2, 제3외국어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외고의 경우 3학년에서 전교과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어 교과에 치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행 수능체제의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명문대학을 거는데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외고만 진학하면 명문대학은 쉽게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바로 이러한 오해가 외고의 입시과열을 불러오고 있다. 외국어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외고 입학이 오히려 대학 진학에는 순례일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는 국립 통역대학과 같은 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서 볼 때 그 학교 수와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 최소한 과학과고등학교 정도로 축소되어, 말 그대로 외국어에 대한 영재들만 교육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어고등학교보다는 그 설립과 운영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설립주체가 사립보다는 국공립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설치 전공과도 대부분 대학 입시에 유리한 영어와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인기인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도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 다양하게 제2외국어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적 배려와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 외고에 대한 입시과열 때문에 금번에 일어났던 입시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 더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전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에너지 잡아먹는 유리공법, 공공건물엔 자제해야

시내 중심가 등에는 대형 유리로 외관을 치장한 건물이 많고 이같은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도 잇따라 지어지고 있다.

유리로 치장한 빌딩은 일반 빌딩에 비해 냉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

전면을 유리로 장식하고 중앙집식 냉방 시스템까지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외부와 온도차이가 7~10도 가까이 난다고 한다. 콘크리트로 된 건물 1층 온도가 25도면

면 유리로 된 건물의 경우 최고 33도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냉방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건물에는 유리 공법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채광을 위한 최소한의 창만 만드는 것이다.

기름값이 현저히 치솟고 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 고민이 필요하다.

▲이주은·광주시 서구 마륵동

잦은 호우 작황 부진에 채소값 올랐다지만 농민들도 손해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며 금자, 금장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했다.

올해 수확량은 많은 비로 인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확량이 적으나 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수확량이 적은 만큼 수익도 적을 수 밖에 없어 이 정도는 꽤다. 씨앗값이라도 건진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았다.

작황이 좋으면 채소값이 폭락, 밭을 같아

있는 일이 흔한 게 현실이다. 채소값 조금 올랐다고 '금자, 금장'이라는 말로 크게 보도하면 농민들의 설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은 기사라도 "올해 2~3개월 출골 내린 비 때문에 채소값의 작황이 안 좋아 값이 약간 올랐다"로 어려운 농촌을 돋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궈 먹는 것이